

베트남, 수출증가 확대를 위한 섬유류쿼터 협상 등 다각적 방안 모색

□ 베트남, 미·EU와의 의류쿼터 협상 진행

- EU는 베트남의 섬유류 및 의류에 대한 쿼터를 크게 늘리는 대신 베트남은 EU의 국내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합의하였으며, 동시에 EU는 ASEAN내에서 국가간에 미사용쿼터 이전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완화할 예정이어서 필리핀에 할당된 쿼터일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이번 쿼터증액으로 EU로의 의류수출은 작년의 5억 달러에서 금년에는 8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.
- 의류수출은 전체적으로는 금년의 32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45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점차로 동 산업은 중국 등 주변국들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 생산성 향상, 물류비용 절감, 통신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망됨.

□ 견조한 수출증가세 유지

- 베트남은 최근의 국제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금년 5월까지 수출액은 전년보다 31%가 증가한 79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.
- 여기에는 이라크전으로 인한 국제유가상승에 힘입은 수출증가에도 힘입어 5월까지의 원유수출은 전년대비 41%가 증가하였음. 전쟁으로 인한 수출피해는 예상외로 작은 반면 대미 수출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함.

- SARS로 인해 서비스부문의 적자가 확대된 반면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액 증가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여기에 ODA의 지속적 유입과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는 3~4% 수준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임.

□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추진

- 베트남은 최근 아프리카 3개국들과 무역증진을 위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는데, 여기에는 나미비아와의 무역 및 투자 보호를 위한 협정, 농업관련 수단과의 협정 그리고 시에라리온과의 경제·문화·기술 협정 등이 포함됨
- 수단과는 동국내의 농업경작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인데 베트남 농업 생산업자들에 의한 동 국내 쌀 경작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임.

선임연구원 김종호(3779-6674)
E-mail: jhokim@koreaexim.go.kr